



손흥민, 검은 마스크 끼고 월드컵 세 번째 질주

부상 부위 빠르게 회복

가벼운 헤더도 OK

우루과이전 선발 출전

새도 스트라이커로 뿔 듯

두 차례 월드컵서 흘린 눈물

이제 환한 웃음만 남아

한국 축구의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이 검은 마스크를 끼고 세 번째 월드컵 질주를 시작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이달 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에서 상대 선수 어깨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안와 골절상을 입어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희박했던 손흥민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며 우루과이전 출전 확률을 높였다.

당초 실전을 소화하려면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게 국내 의학계의 전망이었으나, 손흥민은 스프린트, 슈팅은 물론 가벼운 헤더에도 부상 부위에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회복해 경기 출전이 가능해 보인다.

이제 4년마다, 두 차례에 걸쳐 흘린 눈물을 스스로 닦는 일만 남았다.

손흥민은 넘치는 승리욕에 걸맞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눈물로 분을 풀곤 한다.

대표팀의 막내로 갔던 2014 브라질 월드컵,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모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대회를 마쳤다.

이듬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를 밟은 손흥민은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는 한국 축구의 간판스타로 더 큰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졌다.

손흥민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0-2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시간 만회 골을 뽑아내 한국의 대회 첫 득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결국 2연패를 해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가 어려워지자 손흥민은 경기 직후 방송 인터뷰 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카잔의 기적'으로 불리는 독일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을 마치고도 손흥민은 울었다.

다만 이때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였던 독일을 상대로 이번의 2-0 승리를 마무리 짓는 골을 넣은 뒤 박차서 흘린 눈물이었다.

팬들은 손흥민이 더는 안 울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우루과이전에서 승리해 16강으로 가는 지름길을 개척해야 한다.

벤투호에서의 비중과 회복 속도를 고려할 때 손흥민은 우루과이전에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 헤더와 몸싸움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는 만큼, 그가 공격 최일선에 나서는 이른바 '손톱' 전술을 벤투 감독이 선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규성(전북)이나 황희찬(울림피아코스)가 원톱으로 뛰고, 손흥민은 4-2-3-1, 혹은 4-4-1-1 전술에서 새도 스트라이커나 왼쪽 공격을 맡을 공산이 크다.

그중에서도, 때로는 후방으로 좀 더 내려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새도 스트라이커로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황희찬(울버햄프턴)의 햄스트링 부상이 좀처럼 낫지 않아 나상호(서울)나 송민규(전북)가 왼쪽 공격을 맡고 오른쪽에는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될 전망이다.

벤투 감독의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미드필더인 정우영(알사드)과 황인범(울림피아코스)이 중원을 책임지고 왼쪽부터 김진수, 김영권(울산), 김민재, 윤종규(서울)가 수비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알사바브)가 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연합뉴스



한국 대표팀 에어백 모형 세워놓고 훈련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우루과이 골키퍼들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르살 훈련장에서 한국 대표팀을 연습하게 하는 에어백 모형을 세워놓고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루과이 '전력 숨기기'... "누네스 몸 문제없다"

취재진과 먼 곳에서 훈련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이 한국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전력 숨기기'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다.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우루과이 대표팀은 22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르살 훈련장에서 훈련에 나섰다.

우루과이는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과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전날 비공개 훈련을 진행한 우루과이는 이날은 초반 15분을 미디어에 공개했으나, 선수들의 모습을 자세히 확인하긴 어려웠다.

훈련장엔 두 개의 피치가 있는데, 대표팀은 5분가량 취재진이 늘어난 곳과 먼 쪽에서 미팅했다.

이후 골키퍼들만 취재진과 가까운 쪽으로 이동해 훈련을 시작했고, 필드 플레이 이들은 건너편에 남아 몸을 풀었다.

취재진 바로 앞에서 했던 앞선 훈련들과는 다른 그림이었다. 거리가 멀어 '공개 훈련'의 의미는 무색

했지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선수들의 큰 웃음소리와 기합 소리가 여러 차례 울려 퍼졌다.

우루과이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 26명 중 25명이 이날 그라운드에서 발을 맞춘다고 전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로날드 아라우호(바르셀로나)는 동료들과 전술 훈련 등을 하지 않고, 별도로 훈련하고 있다.

모진상을 당해 우루과이로 돌아왔던 골키퍼 세바스티안 소사(인디펜디엔테)는 팀에 다시 합류했고, 부상 우려를 낳았던 '신성' 다투윈 누네스(리버풀)도 문제없이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매체 미러 등은 누네스가 훈련 중 발목에 이상을 느꼈다고 전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누네스의 몸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라우호에 부상에 대해서 "한국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판단은 의료진이 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한국 - 우루과이 전력 비교

한국	우루과이
H조 조별리그 1차전 11월 24일 오후 10시	
<p>감독 파울루 벤투 (53세, 포르투갈 출생)</p> <p>주장 (7) MF 손흥민 (30세 / 183cm, 토트넘)</p> <p>역대 월드컵 성적 11회* (본선 진출 2회, 16강 진출 2회, 8강 진출 1회, 4강 진출 1회) *카타르 월드컵 포함</p> <p>역대 월드컵 성적 14회* (본선 진출 2회, 16강 진출 2회, 8강 진출 1회, 4강 진출 1회) *카타르 월드컵 포함</p>	<p>감독 디에고 알론소 (47세, 우루과이 출생)</p> <p>주장 (3) DF 디에고 고딘 (36세 / 185cm, 벨레스 사르스필드)</p> <p>역대 월드컵 성적 14회* (본선 진출 2회, 16강 진출 2회, 8강 진출 1회, 4강 진출 1회) *카타르 월드컵 포함</p>
<p>아시아 A조 2위 (7승 2무 1패, 13득점/3실점)</p> <p>카타르 월드컵 예선 성적 남미 3위 (8승 4무 6패, 22득점/22실점)</p>	<p>아시아 A조 2위 (7승 2무 1패, 13득점/3실점)</p> <p>카타르 월드컵 예선 성적 남미 3위 (8승 4무 6패, 22득점/22실점)</p>
<p>1승 1무 6패 (6득점)</p> <p>28위 (월드컵 출전 경험)</p>	<p>6승 1무 1패 (13득점)</p> <p>14위 (10월 6일 기준)</p>
<p>FW 황희찬 (30세 / 183cm, 울림피아코스)</p> <p>FW 조규성 (24세 / 189cm, 전북현대모터스)</p> <p>MF 황희찬 (26세 / 177cm, 울버햄프턴리더스)</p> <p>MF 정우영 (23세 / 186cm, 알사드)</p> <p>MF 황인범 (26세 / 177cm, 울림피아코스)</p> <p>MF 정우영 (23세 / 180cm, SC 프라이부르크)</p> <p>MF 이강인 (21세 / 173cm, 마요르카)</p> <p>DF 김민재 (26세 / 190cm, SSC 나폴리)</p>	<p>FW 다르윈 누네스 (23세 / 185cm, 리버풀)</p> <p>FW 루이스 수아레스 (35세 / 182cm, 나시오날)</p> <p>FW 에딘손 카바니 (35세 / 188cm, 발렌시아)</p> <p>MF 페데리코 발베르데 (24세 / 182cm, 레알 마드리드)</p> <p>MF 로드리고 벤텐쿠르 (25세 / 187cm, 토트넘)</p> <p>MF 루카스 토레이라 (26세 / 168cm, 칼타사라이)</p> <p>DF 로날드 아라우호 (23세 / 185cm, 바르셀로나)</p> <p>DF 마티아스 울리베라 (25세 / 174cm, SSC 나폴리)</p>
<p>27.8세 평균 연령 (출생연도 기준)</p> <p>181.0cm 평균 신장</p> <p>약 2,200억원 평균 몸값</p>	<p>27.8세 평균 연령 (출생연도 기준)</p> <p>181.5cm 평균 신장</p> <p>약 8,200억원 평균 몸값</p>
<p>4-2-3-1 예상 포메이션</p>	<p>4-4-2 예상 포메이션</p>
<p>4-4-1-1 예상 포메이션</p>	<p>4-4-2 예상 포메이션</p>

자료: 대한축구협회, 우루과이축구협회,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스포츠연맹(CIES) /연합뉴스

호날두 5번째 월드컵... 또 골 넣을까

25일 오전 1시 가나와 경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과 같은 H조인 포르투갈과 가나도 한국시간 25일 오전 1시 카타르 도하의 구질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1차전에서 격돌한다.

우리나라는 24일 밤 10시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르고, 곧이어 포르투갈과 가나도 1차전 맞대결을 통해 16강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다.

한국과 우루과이전 결과 못지않게 포르투갈과 가나 경기 승패도 우리나라의 16강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내 축구 팬들은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 1위 후보로 지목되는 포르투갈에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워낙 '월드 스타'이기도 하지만 최근 영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작심하고

비판, 결국 23일 맨유와 상호 합의로 팀을 떠나기로 했다.

또 포르투갈 대표팀 동료 브루누 페르난데스와 불화설까지 불거지는 등 경기 외적인 화제를 몰고 다니는 호날두가 자신의 다섯 번째 월드컵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린 경기다.

호날두가 이번 대회에서 득점에 성공하면 월드컵 사상 최초로 5차례 서로 다른 월드컵 무대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된다.

호날두로서는 조코 포르투갈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활약이 절실하다.

1985년생인 그가 이번 대회에서 건재를 과시하며 특유의 '호우 세리머니'를 여러 차례 할 수 있다면 포르투갈의 우승 도전과 자신의 선수 경력에도 큰 보탬이 되겠지만, 부진할 경우 월드컵이 끝난 뒤 새 소속팀을 찾지 못하는 '무적' (無籍)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 꺾은 사우디 '공휴일' 지정 승리 만끽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물리친 사우디아라비아가 승리 다음 날인 23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처음 본선에 올랐고, 데뷔 무대에서 조별리그 2승 1패로 잘 싸워 16강에 진출했다.

당시 조별리그 3차전 벨기에와 경기에서 사예드 알 오와이란이 하프라인을 넘기 전부터 공을 잡아 질주를 시작, 수비수 세 명을 차례로 따돌리고 터뜨린 1-0 승리의 결승 골은 지금까지 '월드컵 역대 베스트 골'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후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랑스에 0-4,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독일에 0-8로 졌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도 우크라이나에 0-4로 지는 등 나올 때마다 참패를 당해 체면을 구겼다.

2006년 이후 12년 만에 본선에 오른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도 개막전 러시아를 상대로 0-5로 졌다.

하지만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이집트전 2-1 승리에 이어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르헨티나전 승리까지 따내면서 1994년 미국 대회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2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호날두

호날두는 최근 네 차례 월드컵에서 2006년 독일 대회 4위가 최고 성적이다. 2010년과 2018년 대회에서는 16강, 2014년에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월드컵

24일(목) *한국시간 기준

스위스 vs 카메룬 19:00

우루과이 vs 대한민국 22:00

25일(금)

포르투갈 vs 가나 01:00

브라질 vs 세르비아 04:00

자료: FIFA